

오늘부터 나흘간 영광 법성포 단오제

국가무형유산 지정 '3대 단오 축제' 난장트리·선유놀이 등 전통 계승 씨름대회·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7일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 뉴타운 일원에서 개막한다.

'2024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바람따라, 풍류따라' (海風樂風)를 주제로 오는 10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법성포 단오제는 해마다 음력 5월5일 단오를 전후로 열리고 있다.

지난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뒤 강릉 단오제, 자인단오제 등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단오 축제'로 꼽히고 있다.

영광군과 사단법인 법성포단오제보존회는 올해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행사 구성을 알차게 마련했다.

난장 트기와 용왕제, 선유놀이, 당산제·산신제 등 전통 민속·제전을 이어가는 한편 예년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단오장사 씨름대회와 전남도 청소년 페스티벌, 세계문화페스티벌,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축제장에서는 국가무형유산 홍보관과 단심줄놀이, 강강술래, 남사당패 율타기, 장포 머리 감기, 장어잡기 등도 즐길 수 있다.

개막날인 7일 오후 7시 30분에는 '2024 영광 방문의 해 글로리 콘서트'가 펼쳐진다. 가수 홍지윤, 박군, 김수진, 신인선 등이 출연한다.

다음 날인 8일 오후 7시 30분에는 고스트9, 서울 피스톨즈, DJ지니 등이 '청춘 그대들이 별☆이다'



'2024 영광 법성포 단오제' (7~10일) 개막에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난장 트리' 공개 행사에서 대형 난장기를 엮어 법성포 단오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무대를 꾸민다.

9일 오후 8시 30분에는 '천년의 흥! 행복한 영광' 콘서트가 열려 홍진영, 양수경 등이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7시 30분에는 남진, 박강성, 위일정, 소명 등이 '단오야(夜) 좋은 시고!'라는 주제로 폐막 무대를 올린다.

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7일부터 공공배달앱 '먹개비' 5000원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날부터 '먹개비'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는 150명(선착순)은 5000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영광사랑카드를 이용하면 지불액을 충전할 때 10% 할인받는다.

법성포 단오제는 관 주도로 치러지는 대부분의

축제와 달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법성포 단오제의 시작을 따라가면 '조창 기원설'과 '파시 기원설'이 있다.

고려 성종 11년(992년)부터 법성포에 세곡을 모아 수송하는 '조창' (창고)가 세워지고, 이곳을 기반으로 사람이 몰려 독특한 제사 의식을 차렸다는 추측이 있다.

또 조기파시(생선 시장)를 통해 물산과 재화가 풍부해진 법성포에서 축제가 발달했다는 설도 있다.

한편 백제 침류왕 원년, 법성포에 인도승 마라난타에 의해 도래된 불교 문화가 정착하면서 토속 신앙과 자연스럽게 융화한 제전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 무연고자 장례 최대 160만원 지원

장례식장 3곳과 '공영장례' 협약

영암군이 홀로 생을 마감한 지역민을 위해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영암농협장례식장 등 지역 장례식장 3곳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영암군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들은 무연고 사망자와 홀몸 고인의 입관·봉안·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행정 지원을 맡기로 했다. 또 무연고 사망자와 홀몸 고인의 빈소 마련과 추모 의식 등을 위해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지난해 '2023-2027 영암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우승희(오른쪽 두 번째) 영암군수와 지역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무연고자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예의를 갖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치매안심가맹점' 3곳 신규 지정

무안군이 치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매안심가맹점' 3곳을 신규 지정하며 총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일로읍 일로약국과 미네뜨 일로점, 호남참기름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신규 지정 3곳을 포함해 무안에는 10곳의 치매안심가맹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가맹점에 선정된 개인 사업장은 지

역사회의 치매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사업장 구성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이들은 실종 치매 환자나 배회하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고 임시 보호하게 된다.

무안군 치매안심가맹점으로 활동하고 싶은 개인사업자는 무안군 치매안심센터(061-450-5071, 5075)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 해변공원에서 오는 11월 17일까지 연장 개최하는 '2024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축제장 전경.

완도 정원 페스티벌 11월 17일까지 연장

완도 해변공원에서 펼쳐진 '2024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7일까지 연장 개최된다.

완도군은 지난 한 달 진행한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연장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변 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지역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잇따르면서 오는 11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을 해변 부지에서 개최하며 완도만의 특색있는 정원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도 행사를 5개월 연장했다.

올해 축제장에서는 차를 마시며 치유하는 대표

정원, 30개의 작은 집으로 꾸며진 참여 정원 등이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정원과 밤바다와 정원이 어우러지는 야경 등 볼거리와 어린이 체험 행사도 풍성하다.

완도군은 축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여름꽃 등을 심고 시설물을 보강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행사 첫날부터 전시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기간을 연장한 만큼 많은 이가 완도만의 특별한 정원에서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7~8일 조위 상승 침수방지 철저 대비 당부

목포시가 7~8일 바닷물 수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수 침수방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대조기인 7~8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바닷물 수위가 4.9m(최고 4.93m)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밀물 때는 7일 오전 2시 40분, 8일 오전 3시 28분이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벌였다.

침수 경계구역은 북항 노을공원 주변 도로와 옛 해안로 수협 주변, 삼학도 버스 종점 주변 도로, 갖바위 앞 도로 등이다.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침수 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군 '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 유치 총력전

지방시대위원회 찾아 지정 건의

해남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시급성이 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명 군수는 최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명 군수는 앞서 지난 5월 29일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방문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 조성 66만㎡(20만평)와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20만㎡(6만평) 등 총 86만㎡(26만평)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예비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유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남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부 주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말 결정된다.

해남군 솔라시도기업도시에는 10개 사업, 3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화원산단 해상풍력기자재 단지 조성 및 맞물려 국가적 과제인 신재생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한반도 최남단인 해남에서 시작돼야 하는 상징성을 감안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 군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해남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 정사진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